

Robert Vannoy , Exodus to Exile, 강의 10A

사무엘상 1-14장, 사무엘과 왕권

복습

- V. 사무엘서 A. 이름에 대한 일반적인 구성 및 설명 B. 구속사의 중요한 발전
C. 사무엘의 생애 1. 조상과 청소년 ㄱ. 사무엘의 탄생 - 사무엘상 1:1-28

지난 주에 로마 숫자 V에 대한 유인물인 "The books of Samuel"을 드렸습니다. VA는 "이름에 대한 일반적 구성 및 설명"이고 B.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발전"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발견한 구속사의 진보를 살펴보던 지난 주 세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VC, "사무엘의 삶" 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그 아래에 "조상과 젊음" 이 있습니다. 여기에 귀하의 개요에는 없는 몇 가지 하위 항목이 있지만 a. 1 아래는 "사무엘의 출생 1:1-28" 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여러분은 엘가나 라는 남자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 아이를 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면 그 아이를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2절에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5절에서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유를 읽었습니다. 5b에서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 라고 읽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6a 절 에서 그 진술의 반복을 보게 됩니다: “ ... 따라서 한나가 살았던 비참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11절에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이키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사 그러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여호와께 바치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리라.” 그 장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19b절을 읽습니다 .

“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하여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

1) 사무엘의 중요성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이 시점부터 사무엘의 내러티브에서 두드러진 인물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 일으키신 사람입니다.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중요성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재판관입니다. 7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고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무엘을 재판관이 아닌 선지자로 생각하지만, 그는 선지자와 국가 지도자 또는 재판관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결합하여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잘

수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 시기를 요약하고 있으며, 물론 사사기에 언급된 여섯 명의 주요 인물과 여섯 명의 부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사 시대는 사무엘서의 초기 장들과 겹칩니다.

그는 또한 당신이 선지자의 계보에서 첫 번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18장에서 주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언 순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신성한 계시의 수단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가 이 날에 예언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모세에 이어 구약 시대에 사무엘이 그 예언 운동의 선두에 서거나 그 선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은 구약 시대에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대한 구약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보통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이나 이사야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5장 1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모세와 거의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중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도 중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중보기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출하신 7장에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은 같은 문장에서 같은 수준으로 함께 언급되었으므로 확실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2) 출생 공고 다시 1장의 출생 공고로 돌아가 보자. 두 여자 사이의 장에서 대조를 봅니다. 브닌나는 냉정하고 거만하며 한나를 과시합니다. Hannah는 상황에 괴로워하고 짓눌립니다. 이것은 사무엘서에서 더 나아가면서 보게 될 수많은 대조 중 첫 번째입니다. 다음 몇 장에서 우리는 대제사장 엘리의 사악한 아들과 대조되는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무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브닌나와 한나 사이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 사이에서도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사울과 다윗 사이의 대조와 사울과 요나단 사이의 대조를 연습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나중에 결혼한 아비가일 사이에 대조를 이룹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러한 종류의 수많은 대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억압받았지만 경건한 어머니를 통해 의와 경건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1-28절에서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a., “사무엘의 탄생”입니다.

비. 한나의 노래 - 사무엘상 2:1-10 나. 사무엘상 2:1-10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 한나는 1장 27절과 2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을 데려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 동안 그는 여호와께 바쳐질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막 과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상 2:1-10에 있는 한나의 기도 또는 노래가 있습니다. 놀라운 시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위대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Hannah의 노래의 기본 주제와 누가 복음 1 :46-55; 특정 유사점이 있습니다. 1절에서 한나가 여호와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확인하면서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 내 마음이 여호와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리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므로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자랑하나이다.” 그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에게 찾아온 행운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그녀의 기쁨의 진정한 근원은 단지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Hannah는 자신의 구원을 주님을 높이고 그녀의 원수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 안에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2절을 주목하십시오. 한나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심오한 묘사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지극히 강하신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으시니라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과 피난처와 보호를 찾을 수 있는 분입니다.

처음 세 구절에서 Hannah는 자신의 구원 경험을 하나님이 사람과 국가로 이루어진 더 큰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원을 기뻐하고 2절에서 하나님 을 높입니다. 그런 다음 3절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무게 . ” 그분은 모든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의로운 판단으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2장 4-9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과 국가로 이루어진 더 큰 세상에서 섭리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일곱 가지 대조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 용사의 활은 부러졌으나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무장하였도다. ” 강한 사람은 낮추고 약한 사람은 들어 올리는 것, 그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7절에 주목하십시오 . 그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잿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그는 그들을 왕자들과 함께 앉히고 명예의 보좌를 물려받게 합니다. ” 등등. 그래서 여러분은 대조와 반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1장에서 브닌나와 한나와 대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과 대조를 이루고, 나중에는 사울과 다윗 사이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즉, 한나의 이 노래는 이미 예상하셨듯이요.

2장 10절에 있는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그가 하늘에서 그들에게 천둥을 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리라. 그가 그의 왕에게 힘을 주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리로다 ” 10b가 왕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Hannah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왕권의 부상을 예언적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이 2:1-10에 있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씨.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 - 사무엘상 2:11-36 ㄷ. 1 아래는 “삼상 2:11-36에서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 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실로에 남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악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타락한 관행은 다음 몇 구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사이에 이러한 대조가 그려집니다. 17절을 보십시오:

“ 이 소년들[엘리의 아들들]의 이 죄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 그곳의 영어는 “매우 훌륭하다” 로 번역됩니다. 거기에 있는 히브리어는 *가돌(gadol)* , “크다” 입니다. 21b로 내려가면 같은 단어인 *가돌 (gadol)이 나옵니다* . 이번에는 사무엘입니다. “

자랐다” 는 것은 *가돌 입니다* . 그는 주님 앞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 보시다시피 엘리의 아들들은 죄가 크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크게 됩니다.

2:18-21에는 엘가나 , 한나, 사무엘 의 경건한 가정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 그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 그러나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은 소년으로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 .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겹옷을 만들어 그에게 주었다. 엘리는 엘가나 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여자가 기도하여 여호와께 드린 여인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자녀를 주실지어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집에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는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습니다. 한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 .” 그래서 여러분은 2:18-21에서 이 경건한 가정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의 집과 대조되며, 2:12-17과 22-25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12-17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묘사가 있고 22-25절에는 그 묘사가 계속됩니다. 22절에 보면 “ 늙은 엘리가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그분 은 그들을 꾸짖으셨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가문이 대조를 이룹니다. 한편으로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사악함,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한

엘칸 과 한나와 사무엘의 집입니다. 이 대조는 이 장 전체에 흩어져 있는 어린 소년 사무엘에 대해 필자가 한 네 가지 긍정적인 언급에 의해 초점이 맞춰집니다. 2장 11절 첫 번째에 주목하십시오: “그 소년이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더라.” 2:18, 두 번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데 소년은 세마포를 입고 있었더라.” 2:21b, 세 번째: “그 사이에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 그리고 2:26, 넷째: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따라서 이것은 대조의 장입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나온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집과 대조됩니다.

내가 말했듯이 심판은 엘리의 집에 임할 것입니다. 2:27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집의 행위에 대해 그를 꾸짖고 그의 집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c.,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 입니다.

디. 사무엘의 부르심 - 사무엘상 3장

디. 3장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부름”입니다. 사무엘이 장막에서 엘리와 함께 일하며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3장에서 첫 번째 구절이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그 때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많은 시현이 없었습니다 .”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사사 시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암흑기이며 주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호와께서 오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이 이야기에 익숙하다고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니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아니요, 당신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계속됩니다. 3장 6절을 주목하십시오 .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전화했다.’ ’내 아들이’ 엘리가 말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우라.’” 8절, “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전화했다.’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매 여호와께서 오사 말씀하시니라

그가 사무엘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전에 엘리에게 엘리의 집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했습니다. 11절,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여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게 하리라. 그 때에 내가 그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에게 행하리라.’” 14b절, “엘리 집의 죄악은 제사와 예물로는 결코 속죄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음날 엘리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묻습니다. Samuel은 그에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17절에서 “나에게 숨기지 말라” 고 말합니다. 18절,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되 숨기지 아니하니라. 엘리가 이르되 그는 여호와시니 그가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가 되라는 사무엘의 부름입니다.

7절에 흥미로운 진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과정과 사무엘이 엘리인 줄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가운데 7절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는 이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장막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a의 설명은 7b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b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더라” 고 말합니다. 신성한 계시를 받는 이 경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처음에는 여기에서 엘리를 통해, 나중에는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의 끝 부분에 이르면 19절에서 3장 1절과 매우 강하게 대조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많은 환상이 없었습니다.” 19절을 보면 “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 고 했습니다. 즉, 사무엘이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믿을 만했다.

그래서 20절에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고 증거를 얻었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대변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장입니다

. 2. 방주의 상실과 그에 따른 귀환 - 사무엘상 4:1-6:21 그것은 우리를 2로 인도합니다. 귀: 사무엘상 4:1-6:21.” 4-6장은 법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한 것에 대한 삽입형 독립형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처음 세장에서 사무엘의 출생, 그가 실로로 끌려간 다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4-6장에는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7장에 이르면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지만, 여기에는 언약궤와 그 포획에 대해 사무엘이 역할을 하지 않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당신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고 그들이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2b절을 보면 “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전개하매 전쟁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여 블레셋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인 자가 약 4000명이었더라” 고 했습니다 .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장로들은 3절에서 묻습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방식으로 그분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 궁금해했어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기로 결정한 것은 3b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와 함께 가며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더라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언약궤를 그들과 함께 전장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방주가 이 장의 주제가 됩니다.

궤는 4장에서 12번에 걸쳐 다양한 명칭으로 언급됩니다. 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보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우리가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가 언약궤 위에 좌정하셨다는 것을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의 왕좌였습니다.

4장 4b절은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 장에서 일종의 불길한 징조입니다 . 여호와께서는 이미 엘리의 집과 홉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홉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갈 자들입니다. 5절을 보면 “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지르니 땅이 진동하였더라” 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처음에는 두려워하였다. 7절에 “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진영에 신이 들어왔다’ 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곤경에 처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누가 우리가 강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쳐죽인 신들이다 . ’ 10절에서 그들이 싸웠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패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었더라” 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처음 패배했을 때 그들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여호와께 충성하고 있는지 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궤를 부적으로 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마술처럼 그들에게 승리나 행운을 가져다 줄 부적. 신의 임재의 상징을 조작하여 전투에 투입하면 주님이 승리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방인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잊은 것은

언약의 맥락에서 법궤가 신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법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자를 전투에 옮기는 것만으로는
신의 임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고 방주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라는 표현은 11절 이하에서 다섯 번 나옵니다. 그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나이다” , 17절에 “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나이다” , 19절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나이다” 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영광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잃어짐으로써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승리를
허락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빼앗긴 방주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 - 다곤 신전 그러나 5장과 6
장으로 서둘러 갑시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큰 승리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찔렀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2절, 그것을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 곁에 두었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전투에서 이기면 당신의 신이

당신이 패배시킨 사람들의 신보다 강하다는 생각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이 그들이 빼앗은 법궤를 소유한 야훼보다 더 강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곁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더라. 거의 여호와께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유머러스합니다. 그들은 그를 지탱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손이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여기 머리도 없고 손도 없는 신이 있습니다. 꽤 무력한 신입니다. 그는 생각할 머리도 없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손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장 전체에서 전개되는 것은 다곤의 손이 부러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다곤의 손”과 비교되는 흥미로운 언어유희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들에게 황폐를 가져왔고 종양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여호와의 손이 무겁더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말의 이중적 유희입니다. 다곤의 손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무거웠습니다. “Heavy”는 뿌리 *chabed*, 무겁다. 그것은 법궤가 함락되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떠나간 주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인 *카보드* 와 동일한 어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어에 대한 다중 유희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무겁습니다(6절). 7절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여기 두지 못하리니 이는 그의 손이 우리와 다곤을 누르기 때문이라” 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드로 옮겼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9절, “그것을 옮길 때에 여호와와 그의 손이 그 성을 치셨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와 그의 손이 강하시니 그들이 그것을 다시 움직이시며 10절에서 그들은 그것을 에그론으로 가져갑니다 . 에그론 사람들은 이 궤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려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통치자를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궤를 보내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다시 “하나님의 손이 그 성읍을 엄중히 누르셨다” 라고 읽습니다.

법궤의 반환 그러나 6:1에서 읽은 것처럼 7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는 “이 방주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제와 점쟁이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그 제사장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의 힘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주가 있는 이 모든 곳에서 이 모든 종양이 발생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 그들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6장 7절에 “ 그러면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새끼를 낳아 아직 멩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암소 두 마리를 싣고

가십시오. 소를 수레에 매고 송아지를 치우고 울타리에 가두십시오. 여호와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물로 그에게로 돌려 보낼 금 물건은 그 궤
 궤에 싣고 도중에 보내되 계속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자기 영토 곧
 벧세메스로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우리에게 된 줄을
 알리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12절을 읽게 됩니다 . 그들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묵지 않고
 송아지를 낳은 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벧세메스로 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기 4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조종당하지 않을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방주를 싣고 다니면서 신이 당신을 대신해 개입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장에서 주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승리가 자신보다
 다곤의 우월함을 입증했다고 결론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보다 더 강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무거운 손, 즉 가시가 돋은 뿌리가 이 사건에서
 자신을 위해 영광

을 주었습니다 . 그래서 법궤는 6장에서 반환되어 기랏 으로 옮겨집니다.

여아림 , 그리고 이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렀다.

3. 에벤에셀의 승리 - 사무엘상 7:1-14 좋습니다. 이제 7장으로 가겠습니다

. 이 장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20년 후, 7

장 2절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3. "에벤에셀의 승리, 7장 1-14절"입니다. 20

년이 지난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이 지도자가 되어 3절 에서 그가 이스라엘 에게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 그가 너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6절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7장 8절에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심히 당황하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한지라" 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장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녀의 적들에 대한 확실한 승리. 그녀는 언약의 길을 걸으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녀를 대신하여 개입하시고 그녀의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합니다.

4.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다

7장 15-17절의 끝입니다. 그것은 4. 당신의 개요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입니다. 15-17절에서 그의 생애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그는 해마다 벳엘에서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5. 왕권과 언약의 연속성 확립 - 사무엘상 8-12장 그래서 당신의 개요에서 5번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왕권과 언약의 연속성의 확립, 사무엘상 8-12장"입니다. 나는 당신의 개요에서 그 점에 대한 유인물을 주었습니다. 나는 사무엘상 8-12장이 이 책에서 더 중요한 다섯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 다윗의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는 사무엘하 7장도 매우 의미심장한 장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왕권의 부상에 관한 것이며 이스라엘에 왕권이 도입된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야훼가 신성한 왕이었던 직접 신정에서 왕이 야훼의 대리 섭정인 보다 간접적인 신정으로 신정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보면 5.는 “삼상 8-12장에 나오는 왕권의 확립과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의 부상을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이 부분은 실제로 다섯 개의 하위 부분으로 나뉘며 그것들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사무엘상 8장 에는 요청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1-10:16에는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가축을 찾으러 나갔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종의 조언에 따라 사무엘에게 가서 잃어버린 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한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사무엘상 9:1-10:16입니다. 여기에서 장 구분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야기 단위(9:1-10:16)이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기름부음에 이어 사무엘상 10:17-27에서 사울을 공개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 집회에

소집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제비뽑기로 왕으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10:17-27에서 사울은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공개적으로 선택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1:1-13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위협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군대를 일으켜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로 한 선택은 암몬 사람들에 대한 승리로 확증되며, 그것은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나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의 14절은 야훼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하는 맥락에서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는 길갈에서 열리는 언약 갱신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이 소집한 언약 갱신 의식에서 취임합니다. 유인물로 돌아가십시오. 섹션 1, 3, 5는 왕권에 대한 길고 나쁜 경험 이후에 쓰여진 뒤늦고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반군주적 출처라고 합니다.” 즉, 1., 8장에 있는 왕을 구하는 요청; 3.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음; 5. 길갈에서의 의식. 2절과 4절은 더 일찍 쓰여졌다고 하며 역사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친군주적 출처라고 합니다. 그들은 왕권에 대해 더 낙관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류 성경 연구에서 사무엘상의 이 부분에 대한 꽤 표준적인 문학적 분석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종류의 분석이 면밀한 조사를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 3, 5절은 이스라엘의 죄와 왕에 대한 요청에 대해 강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이 죄라면 그것은 왕권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1, 3, 5절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같은 구절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부분이 왕권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이야기 1, 3, 5에서 왕권이 죄로 표현됨 이제 이야기 1, 3, 5에서 왕권이 죄로 표현된 진술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1의 8:7b 장에서 “들어 보세요 . 백성이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나를 그들의 왕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장 19절의 이야기 3에서 당신은 이렇게 읽습니다 . 그리고 당신은 '아니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정적입니다. 12:17절 5절에 “ 지금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천둥과 비를 보내소서.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19절에 “ 백성이 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 20,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 그러나

여호와에게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최악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비. 왕권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그러나 같은 구절에서 8장 7절, 9절, 22절을 보십시오. 8장 7절에서 주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이 네게 말하는 것을 다 들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의 말을 들으라” 고 했습니다. 22절에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왕을 갖는 것은 주님의 목적 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출처에 대해 사무엘상 10:24-25을 보십시오. “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 그리고 25절에서 “ 사무엘이 왕의 규례를 백성에게 설명하니라 ” 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의 역할의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그 문서의 사본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아마도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법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출처 5에서 12:13을 보십시오. 요청;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 위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 그것은 긍정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따라서 사무엘상 8-12장의 긴장은 왕권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출처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씨. 왕권과 길갈에서의 언약 갱신 왕권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긴장은 왕권이 이스라엘과 야훼와의 언약 관계를 확증하느냐 부인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주위 나라들과 같은 인간 왕을 원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추구했을 때(삼상 8:5, 20), 그녀는 사실상 그녀의 왕이신 야훼를 거부했습니다(삼상 8:7, 10:19-20, 12:12). . 이 언약의 파기는 이스라엘이 정죄받은 죄였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웠을 때, 그는 왕권이 확립된 길갈에서 열린 언약 갱신 의식의 맥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야훼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하는 상황에서 주어졌으며 사무엘상 11:14, 12-25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실, 이 구절은 이전 장들에서 주장된 반군주적 긴장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긴장은 언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일치하는 왕권을 수립함으로써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 몇 세기가 될 때까지 왜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립니다. 모든 주변 국가에는 왕이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온 후 유목 생활에서 정주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의 결과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파들이 그들의 영토 소유물로 나갔을 때 백성들에게 어떤 중심적 연합도 없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상황 설명이 실제 문제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왕이었다. 그는 그들 가운데 거하셨고 법궤는 그의 왕좌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에 대한 승리와 관련된 최근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왕으로 사셨던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마련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신정을 특권과 강점이 아니라 책임과 약점으로 보았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의 요청은 그들의 왕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8:7, 10:19, 12:12의 참조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대신에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국력과 단결의 상징인 국가적 영웅, 눈에 보이는 안전과 안식의 보장을 제공할 사람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왕을 요구한 그들의 요청은 그들의 왕으로서 야훼의 역할의 적절성에 대한 회의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그것은 여전히 암몬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변 국가들과 국가적 통합과 안보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것이 요청의 배경이자 동기입니다. 그러한 동기가 잘못되었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이전의 계시에서 이미 예견된 왕권의 때가 이제 도래하였다. 앞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열왕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리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왕권에 관한 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왕권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모두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에서 왕권이 일어날 시간은 지금 여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릇된 이유로 왕을 원했지만 그들의 잘못을 경고하신 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의 말을 상황 위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니라 제 생각에는 그것이 왕권의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기가 옳든 그르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심으로 그들의 악한 동기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자형. 율법/언약 아래의 왕권 이렇게 왕권이 세워졌지만 백성들이 요구한 것과는 다른 왕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 신명기 17장 14-20절을 상기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법 아래 놓임을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그의 통치에서 자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보면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왕은 신적이거나 신적 권위를 가진 대변자로 여겨졌다.

이스라엘에는 왕권에 대한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그의 형제들보다 높임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숭배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이나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신명기 17장).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즉, 왕은 자신에게 법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사는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향한 백성들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왕권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게 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세운 그런 왕권은 언약을 배반한 왕권보다 더 나은 언약 안에서의 왕권이 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에프. 사무엘상 8장 - “테이커”로서의 경고 왕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상 8장과 사무엘상 11-14장을 보는 것입니다. 휴식 시간 전에 이것으로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봅시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입니다. 그들은 5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6. 그러나 주님은 7-9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그래서 나는 당신의 유인물에서 몇 단락을 건너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권을 세울 때가 되었음을 알려 줍니다.

그러나 9-10절에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게 하라” 고 말씀합니다. NIV 번역에서 “그들을 다스릴 왕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들에게 알리십시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왕의 방식을 말하라”입니다. “왕의 제도” 또는 “그들을 다스릴 왕이 행할 일”은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습니다.

11-17절에 있는 이 경고를 더 읽으면 주위 나라들과 같은 왕은 기본적으로 “취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다스릴 왕이 할 일은 이러하니 곧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종을 섬기게 할 것이요.” 12절, “그가 몇 사람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아 자기 밭을 갈고 추수하게 할 것이요” 13절, “그가 너희 딸들을 취하여 요리하게 할 것이며” 14절, “그가 네 밭의 가장 좋은 것을 취하리라.” 15절, “그가 너희 곡식의 십분의 일 곧 너희 포도를 거두리라.” 16절, “그가 너의 가장 좋은 소와 나귀를 취하여 자기를 위하여 취하리라.” 17절, “그가 너희 소출의 십분의 일을 취하리라.” 그래서 정부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취하고, 취하고, 취하고, 취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져갑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유인물 3페이지 하단에 메모가 있습니다. 8:9-17에 있는 왕의 태도에 대한 묘사는 왕국의 태도와 대조되어야 한다. 10:25 에서 왕국의

방식은 진정한 언약적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울이 제비뽑기로 뽑혔을 때 사무엘은 왕국의 방식을 묘사했는데 의심할 바 없이 그 묘사는 취하다, 취하다, 취하다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 신명기 17장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고이며 삼상 8:11-17에 있습니다. 8:19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 그리하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라. ” 따라서 요청은 요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 나는 그 문제가 8:20에서 보인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의 개념을 잃어버렸고, 그 구별됨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주변 나라들과 달라야 했고 여호와께서 그녀의 왕이 되셔야 했습니다.

Katie Dumond가 각본을 맡은 작품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편집
 Elizabeth Fisher
 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가 다시 설명함